

#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4-16】

2014. 6. 20.

## 중앙아시아 투자환경 및 시사점

### 목 차

I. 중앙아시아 성장잠재력 .....	1
II. 중앙아시아 투자환경 .....	5
III. 시사점 .....	8

### 국별조사실

작성: 조사역 김세진 (3779-5708)  
sejin0302@koreaexim.go.kr

확인: 실 장 김주영 (3779-5702)  
jykim@koreaexim.go.kr



■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며, 풍부한 부존자원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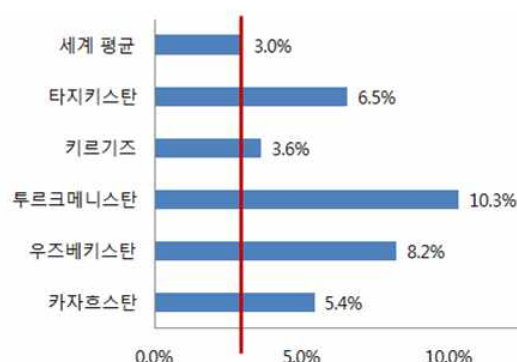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 I. 중앙아시아 성장잠재력

### □ 에너지 자원, 대규모 SOC 투자 등을 통한 고성장세 지속

- 중앙아시아의 지난 5년간(2009~13년) 평균 성장률은 6.6%로, 세계 평균 성장률 3.0%를 상회하며, 향후 5년간 예상 평균 성장률은 6.5%로 과거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지난 5년간 평균 성장률은 투르크메니스탄(10.3%), 우즈베키스탄(8.2%)이 높았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성장률은 중국의 평균 성장률(8.9%)을 상회함.
- 향후 5년간 평균 성장률 역시 투르크메니스탄(9.7%), 우즈베키스탄(6.1%)이 높았으며, 전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키르기즈(4.9%)로 나타남.
- 지속적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 개발정책 등이 주요 경제성장 동인으로 꼽힘.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우 자원 개발 및 수출, 외국인 투자, 대규모 SOC 투자 등이 성장을 주도하였음. 다만, 자원빈국인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



자료: IMF.

<표 1>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국가명	'14	'15	'16	'17	'18
카자흐스탄	5.7	6.1	5.7	5.5	5.4
우즈베키스탄	7.0	6.5	6.0	5.5	5.5
투르크메니스탄	10.7	12.5	9.6	7.8	7.8
키르기즈	4.4	4.9	5.0	5.1	5.2
타지키스탄	6.2	5.8	5.8	5.8	5.8

자료: IMF.



##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과 다양한 광물자원 보유

- 주요 에너지 자원인 원유와 천연가스는 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 매장되어 있으며,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은 상대적으로 보유자원이 빈약한 편임.
- 카자흐스탄은 원유(매장량 기준 세계 12위), 천연가스(세계 20위) 및 석탄(세계 8위)이 풍부하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임.
- 이외에도 카자흐스탄은 크롬(세계 1위), 아연(세계 4위), 몰리브덴(세계 9위), 철광석(세계 8위) 등의 광물자원을, 우즈베키스탄은 금(세계 3위), 우라늄(세계 11위), 희토류 등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표 2>                                      주요 에너지자원 매장 현황

국 가 명	에너지원	항 목	2013년	세계순위
카자흐스탄	원 유	생산량(천 배럴/일)	1,785	12위
		매장량(십억 배럴)	30.0	
	천연가스	생산량(십억 m <sup>3</sup> )	18.5	20위
		매장량(조 m <sup>3</sup> )	1.5	
	석 탄	생산량(백만 톤)	114.7	8위
		매장량(백만 톤)	33,600	
투르크메니스탄	원 유	생산량(천 배럴/일)	231	46위
		매장량(십억 배럴)	0.6	
	천연가스	생산량(십억 m <sup>3</sup> )	62.3	4위
		매장량(조 m <sup>3</sup> )	17.5	
우즈베키스탄	원 유	생산량(천 배럴/일)	63	47위
		매장량(십억 배럴)	0.6	
	천연가스	생산량(십억 m <sup>3</sup> )	55.2	23위
		매장량(조 m <sup>3</sup> )	1.1	

주: 세계순위는 매장량 기준임.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4. 6)

## □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

- 중앙아시아는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남북을 잇는 내륙통로 요충지이며, 중국, 러시아, 터키, 인도 등 대규모 내수시장과의 접근성이 좋음.
-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공간이 될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터키-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의 연결 또한 추진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카스피해 지역 에너지 확보 및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러시아를 우회하는 에너지 수송관 확보 등을 위해 유럽을 포함한 서방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역임.

### <그림 2>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노선도



## □ 고성장에 따른 인프라, 건설, IT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미개척 시장

- 자원의존적 경제 구조로 인해 국제원자재 가격 등락에 경기가 많이 좌우되어 정부 주도의 경제시스템 현대화, 사업 다각화, 산업 수직 계열화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고성장에 따른 인프라, 건설, IT, 발전, 플랜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광물개발, 자원개발 관련 인프라 건설 분야 사업기회가 풍부함.
-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건설 분야와 함께 IT 분야 발전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인 통신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한국형 IT 발전 모델 접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BRICs 국가 중 중국, 러시아, 인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동반성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 등의 사업이 본격 시작될 경우 향후 인프라 부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인프라 부문 수요증가 시 사업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임.
- 중앙아시아 5개국 중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철도 부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그 외 나머지 부문에서 모두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인프라 부문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3>                      중앙아시아 지역 인프라 부문 경쟁력

국 가 명	종합		도로		철도		항구		공항		전력	
	'12	'13	'12	'13	'12	'13	'12	'13	'12	'13	'12	'13
카자흐스탄	78	64	117	117	29	27	115	135	95	89	81	78
키르기즈	103	108	133	133	79	76	144	148	135	128	119	122

주: 1)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은 자료 없음.

2) 2012년 총 평가대상국 144개국, 2013년 총 평가대상국 148개국.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각 년도.



## II. 중앙아시아 투자환경

### □ (개방도) 비교적 양호한 개방도를 지닌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종합순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의 사업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카자흐스탄은 기업환경평가 종합순위 50위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조세납부(18위), 재산등록(18위), 투자자보호(22위) 부문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키르기즈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WTO<sup>1)</sup>에 가입(1998년)함으로써 개방형 무역·투자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개방된 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있음.

<표 4> 2013년 중앙아시아 국가의 기업환경평가 순위

구 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총 합	50	146	143	68
사업등록	30	21	87	12
사업허가	145	159	184	66
전력수급	87	173	186	180
재산등록	18	136	78	9
자금조달	86	130	159	13
투자자보호	22	138	22	22
조세납부	18	168	178	127
국제교역	186	189	188	182
법적분쟁해결	27	40	39	70
사업폐쇄	54	63	81	132

주: 투르크메니스탄 자료 없음.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1) 키르기즈, 타지키스탄은 WTO 가입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옵저버로 참가



## □ (인프라) 낮은 수준의 인프라로 인한 과도한 물류비

-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내륙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교통인프라 발전 뿐만 아니라, 접경국가와의 교통·물류체계의 유기적 협력 및 공조 체제가 매우 중요함.
-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의하면,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교통물류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카자흐스탄이 88위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는 모두 100위권 밖의 순위를 기록하였음.
  - 타지키스탄을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등에서 2014년 순위가 2012년 대비 모두 하락하였음.
- 낮은 수준의 물류인프라, 현대적 물류센터 부재 등 취약한 물류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경쟁체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물류서비스 가격은 높은 편임.

<표 5> 2014년 중앙아시아 5개국의 물류성과지수

국 가 명	순 위	분야별 순위					
		통관	물류 인프라	국제 운송	물류기업 경쟁력	물류 추적	적시성
카자흐스탄	88	121	106	100	83	81	69
우즈베키스탄	129	157	148	145	122	77	88
투르크메니스탄	140	122	146	116	155	134	153
타지키스탄	114	115	108	92	113	119	133
키르기즈	149	145	147	127	151	145	155

주: 2014년 총 평가대상국 160개국.

자료: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각 년도.



## □ (부정부패) 정부 주도의 경제체제로 인한 전반적인 부패정도가 심각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 체제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체제전환국으로서, 정부 주도의 경제체제로 인해 사업 수행 시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정부 고위직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음.
-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부패지수는 중앙아시아 5개국 순위 모두 100위권 밖으로 전반적인 부패정도가 매우 심한 수준임.
- 2013년 기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카자흐스탄도 종합순위 140위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부패 정도가 심해 사업환경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분석됨.

<표 6> 중앙아시아 국가 부패지수 종합순위

국 가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순 위	점 수
카자흐스탄	105	120	133	140	26
우즈베키스탄	172	177	170	168	17
투르크메니스탄	172	177	170	168	17
타지키스탄	154	152	157	154	22
키르기즈	164	164	154	150	24

주: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도 증가함.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 분포.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각 년도.

## □ (재정능력) 정부의 취약한 재정능력 및 담보제공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인프라 개발 제한

- 정부의 재정능력 취약에 따른 사업자금 및 담보제공 능력 부족으로 현지 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 시 사업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이에 따라, 투자자 및 사업 참여자 입장에서는 BOT<sup>2)</sup> 또는 BOO<sup>3)</sup> 방식과 같은 자체 자금을 이용한 선투자 후 중장기 현지 경영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함.

2) Build-Own-Transfer. 인프라 건설 시공사가 일정기간 사업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발주처에 넘겨주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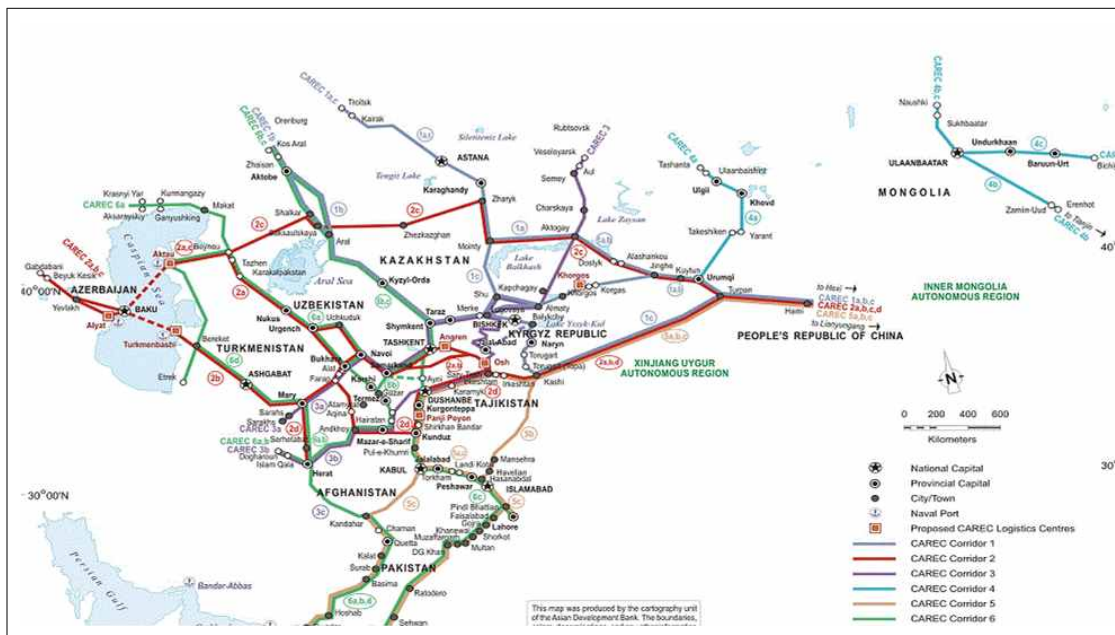
3) Build-Own-Operate. BOT 방식과 유사하나, 시공사가 소유권을 계속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



- 외국인투자 이외에는 중앙아시아 각 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 상당수가 국제개발은행(MDB) 자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 일례로,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체(CAREC<sup>4)</sup>)는 회원국간 교통, 에너지 부문의 인프라 개발사업을 활발히 주도하고 있음.
- 2013년 말 기준으로 146개 프로젝트에 대해 총 224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운송부문에서 총 6개 교통망(Transport Corridor) 건설<sup>5)</sup> 프로젝트, 에너지 부문에서 송배전망,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이 있음.

<그림 3>

CAREC 교통망 건설 노선도



자료: CAREC.

### Ⅲ. 시사점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자원개발 부문 진출 필요성

- 4)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DB 주도로 창설되었으며, 회원국간 교통, 에너지, 무역증진 및 무역정책 등 4대 분야 협력을 주목적으로 함. 회원국으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아제르바이잔, 중국 등이 있음.
- 5) ① 유럽-동아시아, ② 지중해-동아시아, ③ 러시아-중동 및 남아시아, ④ 러시아-동아시아, ⑤ 동아시아-중동 및 남아시아, ⑥ 유럽-중동 및 남아시아 교통망



-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자원 탐사 및 개발부문 진출이 필요함.
  - 중앙아시아 국가 중 원유가 가장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국,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 해외 에너지 기업 진출이 활발함.
  - 우리나라 기업 또한 석유공사 등 국영기업 중심으로 민간 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에너지 부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에너지자원에 대한 자원민족주의적 경향, 시장 폐쇄성 등이 자원개발 부문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으로 꼽힘.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시장 폐쇄성, 정부의 과도한 외환 통제, 열악한 투자환경, 부정부패 등이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되며,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시장 폐쇄성 등이 투자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됨.

<표 7>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주요 에너지 사업 진출 현황

국 가	광 구	지분율 (%)	국내 참여기업	비 고
카 자 흐 스 탄	Ada	75	한국석유공사, LG상사	원 유
	Akzhar, Besbolek, Karataikyz, Alimbai	95	한국석유공사	원 유
	Arystan Kulzhan	85	한국석유공사	원 유
	Zhambyl	27	한국석유공사, SK이노베이션, LG상사, 삼성물산, 아주산업, 대성산업, 대우조선해양	원 유
우 즈 베키 스 탄	West Fergana & Chinabad	100	한국석유공사, POSCO, 삼천리	원 유
	Uzunkui	50	한국가스공사	가 스
	Surgil	50	한국가스공사, 롯데캐미컬, STX에너지	가 스

자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 □ MDB와 공동으로 취약한 교통·물류 체계 개발을 위해 교통 인프라 부문 진출 필요

- 중앙아시아 지역은 넓은 국토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와 경쟁체제의 미비, 현대적 물류센터 부재 등으로 인해 물류 경쟁력이 매우 낮음.
  - 하지만, 내륙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 개발이 중요함.
- 따라서, 기술력 있는 우리 기업이 중앙아시아 정부의 낮은 대금지급 능력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자본조달 방안과 함께 현지 교통 인프라 부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면 대규모 사업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지정부 직접발주 사업은 아직까지 Payment 리스크, 사업 추진 상의 이견조율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현지정부와의 밀착형 사전협의를 통해 MDB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성 있음.
  - 과거에는 국제입찰, 사후관리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 부족으로 MDB 자금 집행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최근 경험 축적으로 상호 이해 수준이 크게 향상됨.

## □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 관심 필요

- 2014년 3월 말 기준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총누계액 기준 32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전세계 총 직접투자액의 1.2%에 불과한 수준임.
  -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대부분 카자흐스탄(75.6%)과 우즈베키스탄(19.8%)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세계은행, 아랍개발은행 등 국제개발은행들이 중앙아시아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투자의 변방으로 취급되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관심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중앙아시아는 고려인<sup>6)</sup> 최다 거주 지역으로서 정서적·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유대감이 높은 지역이며, 최근 우리 정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등 유라시아 단일 시장 형성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경제 파트너임.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조사역 김세진 (3779-5708)  
sejin0302@koreaexim.go.kr

6)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와 연해주, 시베리아 등지로 망명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건너가 지금까지 거주하게 된 한민족을 가리킴.